2023. 5. 13.(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12일(금)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교통공사 Seoul Metro

보도자료

담당부서: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

영업계획처장	이태림	6311-9540
영업안전팀장	오양수	6311-9590
담 당 자	장문영	6311-9593
관련 누리집	http://www.seoulmetro.co.kr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4쪽

생명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 서울 지하철에 더 촘촘하게

- 올 4월부터 광희문, 종합운동장 등 59개 역에 추가로 자동심장충격기 143대 추가 설치
- 공사 275개 전역 비치는 작년 말 완료, 내구연한 완료 앞둔 기기도 속속 교체 중
- 29일에는 대림역서 충격기 및 심폐소생술로 70대 어르신 생명 구하는 등 활용 잦아
- "쓰러진 사람 보면 '신고-심폐소생-충격기' 3단계로 대응 꼭 기억해 주세요"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종합운동장 · 월드컵경기장 · 여의나루 등 59개 역에 올 상반기까지 자동심장충격기(AED) 143대를 추가 배치한다. 추가 배치는 올 4월부터 자치구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이며, 행사나 유동 인구가 많아 혼잡한 역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내구연한 완료를 앞둔 기기도 속속들이 교체한다.

○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응급도구로, 자동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일반인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사용이 매우 간편하다.

□ 법령상 지하철역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75개 역에는 이미 자동심장충격기가 1대씩 배치되어 있었다. 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해 2012년부터 서울시 구간 전체 설치를 시작으로 AED 확충을 추진해, 작년 하반기 5호선 강일역 설치를 끝으로 전 역사 비치를 완료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말부터 높아진 혼잡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공사는 심정지 환자 등 비상상황 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자치구와 추가 설치를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 그 결과 대다수 자치구에서 추가 설치 지원에 나서면서, 혼잡한 59개 역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143대가 올 4월부터 설치되고 있다.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 운영구간 내 자동심장충격기는 모두 418대가 된다. 올해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기존 기기 113대도 모두 교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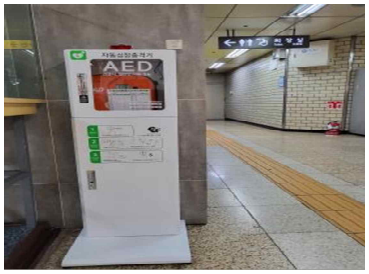
○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도입 역

호선	역(추가 설치대수)
1	서울역(5), 신설동(1), 제기동(2), 청량리(2)
2	강남(1), 건대입구(1), 교대(3), 구의(1), 뚝섬(2), 봉천(1), 사당(5), 삼성(5), 상왕십리(1), 서울대입구(5), 선릉(1), 성수(2), 시청(5), 신도림(5), 신림(5), 신설동(1), 역삼(1), 왕십리(2), 용두(1), 을지로입구(1), 잠실(1), 종합운동장(2), 합정(3), 홍대입구(5)
3	교대(2), 도곡(1), 압구정(1), 종로3가(5), 충무로(2)
4	사당(1), 삼각지(5), 서울역(5), 수유(1), 숙대입구(2), 신용산(3), 충무로(3)
5	광화문(5), 군자(3), 여의나루(4), 왕십리(2), 장한평(1), 천호(3)
6	공덕(1), 디지털미디어시티(1), 월드컵경기장(5), 이태원(5), 합정(2)
7	강남구청(1), 건대입구(1), 군자(2), 뚝섬유원지(1), 먹골(1)
8	석촌(1), 잠실(1), 천호(2)

※ 가장 많이 배치되는 역은 서울역(1 · 4호선 각 기존 1대 + 추가 5대로 총 12대)

○ 추가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사진

▲ 수유역 자동심장충격기



▲ 교대(2)역 자동심장충격기

▲ 이태원역 자동심장충격기

〈응급환자 발생 시 생명 살리는 행동 요령은?〉

□ 하루에 수백만 명이 오가는 지하철에서는 응급환자도 종종 발생한다. 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매년 40건 이상의 응급구호에 사용되는 등, 지하철 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서울 지하철 내 응급구호 실적(2019년~현재)

구 분	계	’23년(~4월)	‘22년	’21년	’20년	’19년
응급구호	194	17	68	37	28	44

□ 지난 4월 29일(토) 아침, 2호선 대림역 내 엘리베이터에서 70대 어르신이 갑작스레 쓰러졌다. 비상근무 중이던 역장과 직원들이 신속히 출동해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로 어르신의 생명을 구해냈다. 당시 응급구호에 나섰던 권상범 대림역 역장은 “직원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며, “응급구호에 필수적인 자동심장충격기가 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필요시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2019년 6월 21일(금) 오후에는 2호선 신림역 근처 편의점을 이용하던 70대 어르신이 갑작스레 쓰러지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신림역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재빨리 가져와 사용하여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적도 있었다. 이 사례는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응급처치 모범사례’로 뽑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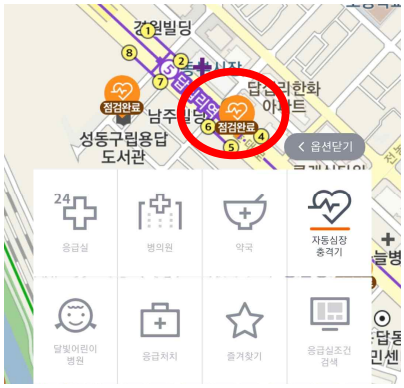
□ 공사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고-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3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갑작스레 쓰러진 사람을 보면 우선 119와 역 직원에게 신고하고(신고), 이들이 오기 전까지 환자를 눕힌 후 흉부 압박을 통해 심장을 자극한다(심폐소생). 이후,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응급조치에 나선다(자동심장충격기).

○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부분 대합실(고객안전실 및 고객안내부스 인근 등)과 승강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심장이 그려진 초록색 간판을 찾으면 된다.

○ 자동심장충격기의 정확한 위치는 ‘응급의료포털’ 웹사이트(http://e-gen.or.kr)의 ‘AED 찾기’ 또는 보건복지부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공사 공식 앱 ‘또타지하철’ 내 역사 안내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확인 방법

▲ 응급의료포털 웹사이트 이용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이용

▲ 또타지하철 역사안내도 이용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공사 관계자는 “평소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긴급 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지하철 내 응급상황 발생 시 항상 협력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공사도 시설 정비 및 확충, 직원 교육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